

이정효 광주FC감독 기자회견 무성의한 태도 '논란'

지난 25일 인천 원정 패배 직후 공식 기자회견서 단답으로 일관 지역 기자 사대질에 흥분된 모습



광주FC 이정효 감독의 성의없는 기자회견 답변 태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유나이티드 원정경기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설전을 주고 받아 상호 존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 감독은 지난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4라운드 원정 경기 직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날 광주는 후반 1분 최경록의 득점으로 앞서갔으나 후반 추가시간 8분 무고사에게 핸드볼에서 비롯된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경기가 종료된 후 선수단은 극도로 흥



이정효 광주FC 감독이 지난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분된 상태였다. 좀처럼 심판진에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정호연이 박병진 주심에게 다가가 강하게 항의하자 김경재

와 단분도 매니저, 신웅섭 트레이너가 말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경기 직후 김진호와 무고사 등 양 팀

선수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발생하며 격양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감독은 "오늘은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자랑스럽다"며 "원정 오신 팬들도 확실하게 우리 K리그가 본받아야 될 응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선수들과 팬들 모두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한 취재진의 도발적인 질문에 이 감독은 짧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감독은 '오늘 경기 결과가 승리했다가 놓친 건데 어떤 부분이 자랑스럽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어진 '경기 후 선수들을 모아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허울이 풀타임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도 "보셨잖아요"라고 일축했다.

또 '경기 시작 전 수비진에 거세게 푸시했다고 말했는데 오늘 수비진들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오늘 경기 무

실점 했었습니다"고 답했다.

이 감독의 답변 태도에 대해 한 취재진이 지적성 질문을 쏟아내자 설전이 벌어졌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취재진이 "감독의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데 '봤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하지는 거냐. 세 번 네 번을 계속 질문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감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고 사대질했고, 이 감독은 "지금 저하고 뭐 하지는 겁니까?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싸우지는 겁니까? 적당히 하세요. 경기 보셨잖아요.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따로 시간 내셔서"라며 맞섰다.

이 감독은 이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퇴장했고, 이 취재진은 이 감독의 태도에 대해 광주 구단 측에 항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에 대해 이 감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한규빈 기자

호랑이 군단, 별들의 잔치 도전장 냈다

올스타 '베스트 12' 팬 투표 시작 양현종·김도영·나성범·최형우 등



올 시즌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개장 후 최다 전석매진 기록을 경신한 KIA타이거즈가 별들의 잔치에도 도전장을 냈다. 양현종과 소크라테스 브리토, 최형우 등 지난해 올스타베스트 12에 선발됐던 선수들의 발탁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 12 팬 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팬 투표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까지 총 21일간 실시된다.

팬 투표 시작과 함께 각 구단에서 12명씩 총 120명의 베스트 12 후보 역시 공개됐다. KIA에서는 △선발투수 양현종 △중간투수 전상현 △마무리투수 정해영 △포수 김태군 △1루수 이우성 △2루수 김선빈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

외야수 나성범·소크라테스·최원준 △지명타자 최형우가 이름을 올렸다.

양현종과 소크라테스, 최형우는 3년 연속 올스타 베스트 12를 노린다. 이들은 2022년과 2023년 팬 투표는 물론 선수단 투표에서도 지지를 받으며 별들의 잔치에 나선 바 있다.

팬 투표는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각 1일 1회씩 참여할 수 있다. KBO는 세 투표 페이지를 모두 취합해 다음 달 3일과 10일 두 차례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17일 발표되며 팬 투표를 70%, 6월 중진행되는 선수단 투표를 30%의 비율로 합산한다.

한편 KBO는 팬 투표에 참여하는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다. KBO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투표에 참여한 팬 7명을 추첨해 LG 스탠바이미 GO,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JBL 블루투스 스피커,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한규빈 기자

완도중 김태양, 소년체전 역도 3관왕 등극

인상·합계서 대회 신기록

완도중 역도부 김태양(3년·사진)이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두 차례 대회 신기록을 포함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대회 2관왕의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낸 성과다.

김태양은 27일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역도 남자15세 이하부 81kg급에서 인상과 용상, 합계 모두 가장 높은 무게를 들어 올리며 3관왕을 차지했다.

김태양은 인상에서 1차 시기 113kg, 2차 시기 119kg, 3차 시기 121kg를 모두 성공하며 최종 121kg으로 대회 신기록을 달성한 뒤 용상에서도 1차 시기 132kg, 2차 시기 141kg, 3차 시기 148kg을 모두 성공시키며 최종 148kg을 기록했다.



또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1차 시기 253kg, 2차 시기 262kg, 3차 시기 269kg으로 인상에서 이어 합계에서도 최종 269kg으로 대회 신기록을 달성하며 대회 3관왕을 완성했다. 지난해 대회 역도 남자16세이하부 73kg에서 인상과 합계 금메달을 차지했으나 용상에서 은메달에 머무르며 2관왕이었던 김태양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싹쓸이하이며 아쉬움을 털었다.

한규빈 기자



전웅태가 지난 22일(현지 시간)부터 26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UIPM 2024 근대5종 월드컵 파이널 혼성 계주에 참가해 결승선을 통과하며 성승민에게 달려가고 있다.

국제근대5종연맹 제공

광주시청 전웅태, 근대5종 월드컵 파이널 동메달 수확

혼성 계주서 성승민과 1341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전웅태(광주시청)가 2026 파리 올림픽 메달 사냥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성승민(한국체대)과 'UIPM(국제근대5종연맹) 2024 근대5종 월드컵 파이널'에서 혼성 계주 동메달 합작에 성공했다.

전웅태와 성승민은 지난 22일(현지 시간)부터 26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이번 대회 혼성 계주에서 총점 1341로 발라즈 세프-미셸 콜리아스(이상 헝가리·총점 1381)와 아메드 하메드-살마 압델막수드(이상 이집트·총점 1372)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동메달을 목에 건 전웅태는 이번 시즌 첫 월드컵 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올림픽 메달 도전에도 청신호를 켰다.

전웅태는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개인전 동메달로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첫 메달을 수확한 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을 따며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전웅태와 성승민의 출발은 좋지 못했다. 펜싱에서 부진하며 7위에 그쳐 206점을 획득했다.

하지만 승마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293점을 적잖은 뒤 수영에서는 3위로 313점을 쌓았다. 이어 레이저 런(사격+육상)에서 2위로 529점을 얻으며 총점 3위로 입상에 성공했다.

전웅태는 UIPM을 통해 "성승민과 처음 혼성 계주에서 호흡을 맞췄다"며 "펜싱이 내 실수로 좋지 못했지만 함께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음에 행복하고 함께 경기에 임한 파트너 성승민에게도 고맙다"며 "이제 세계 선수권과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웅태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는 입상하지 못했다. 전웅태는 서장완(국군체육부대)과 함께 출전한 남자 개인전에서 총점 1496, 1484로 각각 5위와 8위를 기록했다.

한규빈 기자